

신라 경주의 東川 沙梁과 西川 及梁*

정연식**

1. 머리말
2. 고대 중국어와 한국어의 流音
 - 1) 중국어 상고음의 유음 韻尾
 - 2) 고대국어의 유음 音素
3. 중국어의 유음 운미 소멸과 고대국어의 유음 末音 표기
 - 1) 상고 후기 유음 운미의 소멸
 - 2) 介音 *-r-의 음운도치를 이용한 표기
4. 沙로 표현된 동쪽 *sar
5. 及·押으로 표현된 서쪽 *karp
6. 王京의 沙梁·及梁, 中原京의 沙梁, 及伐山郡의 沙川
7. 맷음말

1. 머리말

신라 초기의 6부에는 이름에 ‘梁’이 들어가는 부가 及梁部, 沙梁部, 漸梁部(牟梁部)로 셋이나 있다. 그런데 ‘梁’은 고려시대 문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고, 신라 당대의 금석문에는 ‘喙’로 나타난다. 喙(梁)는 우리말 고대국어의 하천을 뜻하는 ‘돛’[*turk]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로 생각된다.¹⁾ 그렇다면 沙梁, 及梁, 漸梁(岑喙)은 무슨 뜻일까? 필자는 沙는 동쪽, 及은 서쪽, 漸·岑·牟는 거칠다[荒]는 뜻의 고대국어를 표기한 한자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²⁾ 이 글에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기초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정연식, 2015a 「신라인들이 ‘喙(鴟)’로 표현하고자 한 소릿값과 그 뜻」 『역사와 현실』 95.

서는 지면관계로 꼼꼼히 다루지 못한 沙와 及의 음과 의미를 음운학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한자음(Sino-Korean)에는 여러 층위의 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자음이 남북조시대의 吳音과 당대의 漢音으로 뚜렷이 갈라진 것과는 달리, 한국한자음은 음의 체계가 대체로 균일하여 하나의 핵심 층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한자음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慧琳의 『一切經音義』(788~810) 단계의 唐代 長安音으로 보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견해가 지금까지 통설이 되어 왔다.³⁾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토 지유키(伊藤智ゆき)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체경음의』의 단계를 거쳐 근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唐末·五代의 장안음으로 보았는데, 그것도 고노의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⁴⁾ 결국 한국한자음은 베트남한자음, 일본 漢音과 같이 당 후기의 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풀리블랭크(E. G. Pulleyblank)의 시기 구분에 따르면 후기중고음(LMC)에 해당된다.⁵⁾

그러나 신라 초기 지명에 쓰인 한자음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므로 후기중고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沙梁의 沙를 [sa]로 읽을 수 없고 及梁의 及을 [kip]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건국이 기원전 1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므로 신라 초기 지명도 그 당시의 중국 한자음에 가까운 우리말 고대국어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라를 건국한 주체세력은 경주의 토착세력이 아니라 북방에서 내려온 유이민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00년경에 고조선이 멸망한 뒤 그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여기저기 흩어졌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경주 분지까지 내려와서

2) 정연식, 2015b 「역사음운학과 고고학으로 탐색한 闕川 楊山村」 『한국고대사연구』 80: 2016a 「모량(牟梁), 잠嘲(岑嘲)의 뜻과 귀교(鬼橋)의 위치」 『인문논총』 30,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b 「신라 금성(金城)의 위치 고증」 『한국사연구』 173.

3) 河野六郎, 1979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 2』, 東京: 平凡社, 509면.

4) 伊藤智ゆき, 2007 『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266-267면.

5) E. G. Pulleyblank, 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2.

산골짜기 사이에 군데군데 집단을 이루며 살았으며, 그 가운데 6촌 세력이 중심이 되어 신라를 건국하였다고 전한다.

‘건국’의 기점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 집단이 경주에 거주 터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기원전후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기원후 1세기, 2세기에 조성된 경주 조양동, 탑동, 사라리의 土壙木棺墓에서 瓦質土器와 함께 漢나라의 日光鏡이나 樂浪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그러한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중국의 한자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 건국 초기의 지명이나 인명을 표기한 한자는 신라 건국초기에 해당되는, 기원전후 前漢 말 後漢 초의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고대 중국어와 한국어의 流音

1) 중국어 상고음의 유음 韻尾

일반적으로 칼그렌(B. Karlgren), 리팡구이(李方桂) 등은 막연히 『詩經』의 押韻이 작용했던 先秦 시기의 음을 上古音, 隋 『切韻』(601)의 음을 中古音으로 보았다. 그러나 周秦과 隋 사이의 전한(BC221~AD7), 후한(25~220), 위진시대(220~419), 남북조시대(419~589)의 음을 상고음과 중고음 가운데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다.

兩漢, 魏晉南北朝의 음에 대해서는 일찍이 뤄창페이(羅常培)와 저우쭈모(周祖謨)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 周祖謨는 周秦의 古音이 兩漢 시기에 바뀌기 시작하여 魏·晉·宋 시대에는 변화가 한층 심해졌고, 결국 齊·梁·陳·隋에서는 앞의 시기와 경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⁶⁾ 백스터(W. H. Baxter)도 2등 介音 *-r-

6) 羅常培·周祖謨, 1958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1分冊), 北京: 科學出版社; 周祖謨, 2004 『周祖謨語言文史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165-195면(1948年稿, 「齊梁晉隋時期詩文韻部研究」). 후에 周祖謨는 殷·西周를 상고전기, 東周·漢을 상고후기, 魏晉南北朝를 중고기로 보았다(1979년 湖北大學 講演 「漢語發展的歷史」).

이 사라진 중요한 변화가 500년경에 시작되어 운의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하였다.⁷⁾ 劉宋(420~479)과 南齊(479~502)의 사이의 500년경을 상고음과 중고음의 경계선으로 인식한 것이다. 딩방신(丁邦新)은 漢音은 상고음과 유사하고, 南北朝音은 중고음과 유사하며 200~400년의 魏晉시대에 상고음에서 중고음으로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즉 위진시대를 과도기로 보고 한대를 상고 후기로 본 것이다.⁸⁾ 스타로스틴(S. A. Starostin)도 전한·후한을 고전상고기 후기로 보고 3세기부터 5세기를 과도기로 보고 6세기부터를 중고기로 보고 있다.⁹⁾ 정장상팡(鄭張尚芳)은 秦·漢·魏 시기를 상고후기로, 남북조시대와 수·초당시기를 중고 전기로 보고 그 사이의 西晉(265~317)·東晉(317~420) 시기를 과도기로 보았다.¹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자면 시기적으로 약간의 드나듦이 있지만 대체로 周秦의 음을 상고음(OC), 前漢·後漢의 음을 후기 상고음, 魏晉시대의 음을 과도기음으로 보고, 南北朝시기부터 중고음(MC)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¹¹⁾ 따라서 漢시기에 해당되는 신라 건국초기의 음은 상고음, 그중에서도 후기 상고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 상고음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알아보아야 한다.

남북조·수·당의 중고음 음절은 운미가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開音節 陰聲韻 이거나, -m, -n, -ŋ 등의 공명음으로 끝나는 陽聲韻이거나, -p, -t, -k로 끝나는 入聲韻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중고기의 한자음에는 流音 -r 또는 -l로 끝나는

-
- 7) W. H. Baxter, 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p.259.
 - 8) Ting Pang-hsin, 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Taipei: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p.10.
 - 9) S. A. Starostin(斯·阿·斯塔羅斯金), 林海鷹·王冲(譯), 2010 『古代漢語音系의構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Starostin, 1989, *Reconstruction of Old Chinese Phonological System*, Moscow: Nauka), 292-293면.
 - 10) 鄭張尚芳, 2012 『鄭張尚芳語言學論文集(上冊)』, 北京: 中華書局, 171-172면(2002 「漢語方言異常音讀的分層及滯古層次分析」『第3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
 - 11) 王力도 3세기까지를 상고기로 보고, 4세기부터 12세기 남송 전반까지를 중고기로 보되 3, 4세기를 과도기로 보았다[王力, 2013 『漢語史稿』(初版1957-1958), 北京: 中華書局, 35면].

음이 없었다.

그러면 상고음 음절에도 유음 운미가 없었을까? 루즈웨이(陸志韋), 왕리(王力)와 보드만(N. C. Bodman), 백스터는 상고시기에도 유음 운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¹²⁾ 그러나 칼그렌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은 유음 운미의 존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중고의 以母 j-는 상고의 *l-에서 왔고, 來母 l-은 상고의 *r-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즉 상고의 유음 성모는 *r-과 *l-이 모두 있었는데 중고에서 l- 하나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유음 운미는 상고에 하나만 존재했다가 중고에 사라졌다고 보며, 그 실체에 대해서는 *-r로 보는 견해와 *-l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초기에는 상고음 유음 운미를 *-r로 설정하였다. 칼그伦은 諧聲체계와 『詩經』의 協韻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음 운미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것으로는 *-r이 적절하다 생각했다. 예컨대 ‘旂’의 音符는 ‘斤(근)’이다. 그런데 ‘旂’를 音符를 따라 ‘근’ 또는 근과 비슷한 음으로 읽지 않고 ‘기’로 읽는 것은 해성체계로 볼 때에 기이한 일이다. 그리고 또한 旂(기)를 詩의 協韻으로 살펴보면 음성자인 旂(기)가 *-n을 지닌 양성자인 晨(신)이나 芹(근)과 協韻을 이룬다.¹³⁾ 이처럼 중고음에서 운미가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陰聲字 가운데 일부가 *-n을 지닌 陽聲字와 협운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음성자와 양성자의 협운은 대체로 歌部, 微部, 脂部와 文部, 元部, 眞部 사이에 일어났다. 음성자가 舌尖音 *-n과 협운하는 것을 이해하자면 상고음 음성자에 *-n과 음운상으로 유사한 속성의 어떤 운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칼그렌은 중국어를 같은 漢藏

12) 王力(1978)은 초기에 歌部를 *-a로 재구했으나, 후에 鄭張尚芳의 건의를 받아들여 〈표 1〉에 보이듯이 *-ai로 수정했다(王力, 2013 앞의 책, 81면; 潘悟雲, 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78면). 그러나 정작 鄭張尚芳 자신은 후에 歌部의 운미를 *-al, *-el, *-ol로 달리 재구했다.

13) B. Karlgren(高本漢), 張世祿(譯) 2015 『漢語詞類』,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35면(B. Karlgren, 1933 “Word Families in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5,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편의상 ‘旂(기), 斤(근)’으로 표현했으나 칼그レン의 방식으로는 ‘旂[*gjei], 斤[*kjən]’으로 표현된다(이 글에서 칼그렌, 董同龢 등의 개음 -i-는 -j-로 대체한다).

語族(Sino-Tibetan family)에 속하는 티벳어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n과 협운할 수 있는 韻尾로 *-r, *-l, *-s 셋을 지목했다.¹⁴⁾ 칼그렌은 그 가운데 *-s는 설첨음 *-n과 다른 마찰음이므로 제외했고, *-s는 로타시즘(rhotacism)에 의해 *-r로 변하기 쉬우므로 남은 *-r과 *-l 가운데 *-r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상고음에 *-ər, *-ər, *-ar을 설정했다.¹⁵⁾ 그 후로 도도 아키야스(藤堂明保), 둉퉁화(董同龢), 야흐토프(S. E. Yakhontov), 저우파가오(周法高) 등 여러 학자들이 脂部, 微部, 歌部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고음 운미 *-r을 설정했다.

이어서 1971년에 상고음 연구에 일획을 그은 李方桂의 「上古音研究」가 발표되었다. 李方桂는 음성운 가운데 유일하게 짹이 되는 入聲韻이 없는 歌部의 글자들이 운미가 *-n인 元部의 글자들과 諧聲하고 押韻한 흔적이 있으므로, 歌部에 운미 *-r을 두되, 칼그렌과는 달리 歌部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ar로 설정했다. 다만 그는 운미 *-r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지 *-r을 ‘잠정적으로 설정[暫擬]’한다고 했다.¹⁶⁾ 이어서 丁邦新도 歌部 전부를 *-ar로, 微部 일부를 *-ər로 再構했다.¹⁷⁾

그런데 1974년에 이르러 슈에슬러(A. Schuessler)는 이제까지 칼그렌과 李方桂가 재구한 운미 *-r을 *-l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 n과 l은 조음방법은 폐쇄음과 설측음으로 다르지만 조음부위는 한어음운학에서 舌尖音(舌尖前音)이라 부르는 齒莖音(alveolar)으로 들이 같다. 舌尖音 *-n과 협운하는 운미로는 舌尖後音인 *-r보다는 같은 설첨음인 *-l이 더 낫다고 보았다. 그리고 칼그렌이 *-r로 재구한 음절들은 藏緬語(Tibeto-Burman)의 -r, -l, -y에 대응하는데 상고의 來母 *r-이 중고음에서 l-로 변했고, -l은 그 상태 그대로 *-l에 대응하고, 以母 *-l-이 중고음에서 -j(y)로 바뀐 것으로 보더라도 상고음 운미로는 *-r보다는

14) 위의 책, 47면.

15) B. Karlsgren(최영애 옮김), 1985 『古代漢語音韻學概要』, 민음사, 139-148면(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 26,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칼그렌은 質部 일부에 해당되는 제11조(*-ed) 가운데 극히 희귀한 예로 *-er로 설정하기도 했다(위의 책, 152-153면).

16) 李方桂, 1971 「上古音研究」 『清華學報』 9-1 · 2(1980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3 5 · 53면에 재수록).

17) Ting Pang-hsin, 1975, op. cit., p.240.

*-l이 적절하다고 했다.¹⁸⁾ 그 후로 풀리블랭크는 자신이 예전에 자신이 재구했던 *-δ를 *-l로 수정하여 歌部 *-al, 微部 *-əl로 *-l 운미설에 합류했고,¹⁹⁾ 궁황청(龔煌城)도 초기에는 *-r과 *-l이 공존했다고 보았으나 결국 상고의 유음 운미를 *-l 하나로 수정했다.²⁰⁾ 이어서 정장상팡(鄭張尚芳)과 판우원(潘悟雲)은 6모 음체계의 주요모음 모두에 운미 *-l을 붙여 *il(脂₁) · *el(歌₂) · *al(歌₁) · *ol(歌₃) · *ul(微₂) · *wl(微₁)을 완성했다.²¹⁾ 이들은 백스터가 재구한 운미 *-j는 *-l로 이미 *-j로 바뀐 이후의 상태를 인식한 것으로 이해했다.

2) 고대국어의 유음 音素

우리나라 고대국어에서도 유음 음소가 존재했던 것만은 거의 확실시된다. 향가에서 ‘날’을 ‘日戸’로 표기하고, ‘길’을 ‘道戸’로 표기한 것은 戸가 유음 ‘ㄹ’의 표기수단이었다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절음화로 인해 말음의 ‘ㄹ’은 -l로 발음되지만 절음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말음이 外破했던 고대국어의 유음은 *-r이었을까, *-l이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현재 *-r만이 존재했다는 주장과 *-r과 *-l이 공존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r과 *l이 공존했다고 보는 학자들은 알타이계 여러 언어에서 r과 l의 대립이 있고, 한자표기에서도 *-r과 *-l을 戸와 乙로 구별해서 표기했다고 보고 있다.²²⁾ 한편 *-r 하나만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은 『鷄林類事』나 『鄉藥救急方』에서 치음 앞의 유음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戸와 乙도 음운론적인 구분이

18) A. Schuessler, 1974 “Final -l in Archaic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1.

19) E. G. Pulleyblank, 1977-1978 “The Final Consonants of Old Chinese”, *Monumenta Serica* 33, p.185.

20) 龔煌城, 2002 『漢藏語研究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 語言學研究所籌備處, 31-65면(1993 「從漢·藏語的比較看漢語上古音流音韻尾的擬測」『西藏研究論文集』 4).

21) 潘悟雲, 2000 앞의 책, 262면; 鄭張尚芳, 2013 앞의 책, 72면. 鄭張尚芳은 중국어 방언, 藏緬語, 베트남한자음, 한국한자음의 수많은 *-j의 사례로 상고음 운미를 *-j로 보기도 하였으나, 후에는 *-j를 原始의 *-l이 변한 결과로 보았다.

22) 이승녕, 김완진, 이기문, 박창원은 고대국어에서 *r과 *l이 대립적 음소로 존재했다고 보았고, 김영진은 더 나아가 *i을 *¹i과 *²i로 나누어 유음을 셋으로 보았다(김영진, 2002 『국어사 연구』, 이희, 515-552면).

라기보다는 형태론적 구분으로 보며, 현대국어에서도 음절 끝에서만 존재하는 /-l/은 /-r/이 절음화 이후에 /-l/로 이음화(異音化)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²³⁾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동쪽을 뜻하는 말이 지닌 유음 음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하므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r과 *l이 공존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대체로 戸는 *-r을, 乙은 *-l을 표기하였다 고 인식하고 있는데, 뒤에 언급하듯이 향가에서는 동쪽을 ‘東戶’로 표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r을 지닌 고대국어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즉 *-r 외에 *-l이 별도로 존재했든, 그렇지 않든 이 글의 논지와 충돌하지 않는다.

3. 중국어의 유음 운미 소멸과 고대국어의 유음 末音 표기

1) 상고 후기 유음 운미의 소멸

뒤에 제시할 <표 1>에서 스타로스틴과 백스터는 歌部의 운미를 *-j로 하였다. 백스터는 古베트남한자어, 중국어 방언 등의 -j를 근거로 歌部의 운미를 *-j로 했다.²⁴⁾ 반면에 스타로스틴(1989)은 *-r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歌部(歌_A · 歌_B), 脂部(脂_A · 脂_B · 脂_C · 脂_D)의 운미는 *-j로 하고, 오히려 文部(文_C · 文_D), 元部(元_D · 元_E)에 *-r을 두었다. 그리고 그 *-r이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사이에 *-n으로 변하여 본래부터 *-n을 지니고 있던 眞部(文_A · 文_B), 元部(元_A · 元_B · 元_C)와 협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⁵⁾ 그렇다면 운미 *-r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이미 사라졌으므로, 신라 초기의 상황에 국한해서 보면 운미 *-r을 인정하지 않는 백스터의 견해와 실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

23) 김무림, 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67면; 김동소, 2011 『한국어의 역사』(수정판), 정림사, 77면.

24) 潘悟雲, 2000 앞의 책, 178면.

25) S. A. Starostin, 林海鷹 · 王冲(譯), 2010 앞의 책, 301-302면. Starostin은 그 시기를 前期古典上古期(Early Classic Old Chinese)로 명명했다.

한편 <표 1>에서 李方桂와 丁邦新은 운미를 *-r로 하였고, 풀리블랭크, 鄭張尚芳, 潘悟雲은 *-l로 하여 비록 차이는 있지만 유음 운미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중고음에서는 유음 운미가 모두 사라졌다. 즉 그 사이의 한, 위진, 남북조시기 언젠가에 유음 운미가 사라진 것이다. 李方桂는 유음 운미 *-r이 『切韻』 시대 초기에는 이미 소실되어 흔적을 남기지 남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⁶⁾ 그렇다면 중고음 단계가 아니라 이미 상고음 말기에는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야흔토프는 상고음 운미를 7개(m · n · ŋ · p · t · k · r)로 하고 그 가운데 여섯은 아직도 廣東語와 같은 남부 방언에 남아 있는데 오직 *-r만이 서력기원 이전에, 즉 前漢 시기에 *-i로 변했거나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²⁷⁾ 한편 丁邦新 (1975)은 *-rɔ] 前漢까지 존속되다가 後漢(25~220)에서 사라졌으며, 남북조시기에 개음 *-r-마저 탈락하였다고 보았다.²⁸⁾ 결국 신라 건국초기에 해당되는 漢代에 유음 운미는 이미 사라졌든가, 아니면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유음 운미가 사라지자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인들이 외국어의 -r/-l을 표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중국에서는 유음운미가 막 사라질 시기인 前漢 말기에 불교가 유입되어 불교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譯經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작 중국어로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의 -r/-l을 표현하기 어려워졌다. 불경만이 아니라 서역의 인명, 지명을 표현할 때에도 제약이 생겼다.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로는 *-n을 지닌 글자로 -r/-l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鮮卑(Serbi), 安息(Aršak), 突賓(Kaspir), 羅雲(Rāhula)을 들 수 있다.²⁹⁾ 둘째로는 운미가 *-t

26) 李方桂, 1980 앞의 책, 53면.

27) J. Norman tr., 1978-1979 "Old Chinese Phonology", *Early China* 4, Hanover: Dartmouth College), p.37(S. E. Yakhontov, 1965 *Old Chinese*, Moscow: Nauka). 야흔토프는 유음을 지닌 운모로 *-ər, *-or, *-ur을 설정했다.

28) Ting Pang-hsin, 1975, op. cit., pp.239-240. 王力와 Starostin은 *-r에 상응하는 운미로 *-i와 *-j를 설정했는데, 王力는 *-i가 兩漢 시기에 탈락했다고 보았고, Starostin은 *-j가 後漢 시기에 탈락했다고 보았다.

29) B. Karlgren, 張世祿(譯), 2015 앞의 책, 48-49면; E. G. Pulleyblank, 1962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I · II", *Asia Major* 9-1 ·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77 · 218; W. S. Coblin, 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인 글자로 -r/-l을 표현하는 것이다. 涅槃(nirvāna), 薩雲若(sarvajña), 弗沙(purusa), 優鉢(utpala) 등이 그 예이다.³⁰⁾

2) 介音 *-r-의 음운도치를 이용한 표기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말소리를 한자로 표기했던 우리 민족에게도 똑 같은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유음을 표기할 때에 중국이 썼던 것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t로 우리말의 '-ㄹ'을 표현하는 첫째 방법이다.³¹⁾ '별(伐:buat)', '달(達:dat)', '물(勿:mut)'과 같이 한국한자음에서 '-ㄹ'로 읽는 글자의 상고음이나 중고음은 거의 예외 없이 -t를 지니고 있었다.³²⁾ 이 방법은 고대국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둘째 방법은 *-n으로 *-r을 표현하는 사용되었다. 예컨대 阿乙兮를 安賢이라 고도 하고, 賓汝을 比勿이라고도 한 것처럼 운미 *-n을 지닌 安, 汝으로 *-ar, *-ur을 표기했다.³³⁾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용된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었다. *-r 음소 하나만을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고대국어 표기에서선 '戶' 또는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72. 근래에 潘悟雲은 安, 鮮의 음가가 본래 *ar, *ser이었는데 상고 후기에 東夷百越지역에서는 *-r>*-j의 변화가 있었고, 中原地區에서는 *-r>*-n의 변화가 일어나 *an, *sen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潘悟雲, 2007 「上古漢語的韻尾*-l*與-r」『民族語文』 2007年 1期, 13-15면), 지면관계로 복잡한 논의를 피한다.

- 30) 爾敏, 1999 「後漢三國梵漢對音譜」『爾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18-19면.
- 31) 우리나라에서 -t를 지닌 한자로 -l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강신항의 연구가 좋은 참고가 된다[강신항, 1997 「한국한자음(高麗譯音)의 舌內入聲韻尾-t>-l에 대하여」『梧堂趙恒瑾先生華甲紀念論叢』(2003 『韓漢音韻史研究』, 태학사에 재수록)].
- 32) 풀리블랭크의 전기중고음(Early Middle Chinese)로 재구했다(E. G. Pulleyblank, 1991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89 · 69 · 327).
- 33) 『三國史記』 권34, 지리지1 尙州 “安賢縣 本阿戶兮縣 一云阿乙兮 景德王改名 今安定縣”; 권37, 지리지4 都督府一十三縣 “賓汝縣 本比勿”

‘乙’로 유음 말음을 표기했다.³⁴⁾ 이것은, 뒤에 언급하겠지만, 다음에 제시되는 네 번째 방법보다 나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성모와 주요모음 사이에 낀 介音 $*-r-$ 을 이용하여 $*-rV$ 로 $*-Vr$ 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음운도치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沙’였다. 이를 설명하려면 2등 개음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야흔토프(1960)는 중고음에서 1등자와 2등자의 차이를 상고음에서의 개음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해했다. 1등자에 비해서 2등자의 모음은 비교적 혀의 위치가 앞쪽이거나 開口度가 크고, 2등자는 자음 1을 머리자음으로 하지 않으며, 2등자는 티벳어의 $-r-$ 또는 $-l-$ 을 포함한 글자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야흔토프는 2등자의 개음으로 $*-l-$ 을 설정했다.³⁵⁾

이에 대해 李方桂는 야흔토프의 $*-l-$ 을 $*-r-$ 로 교체했다. 그는 상고에 舌尖音 이었던 知組(知, 徹, 澄, 娘)과 莊組(照, 穿, 牀, 審)가 중고에 퀸설음이 된 것은 개음 $*-r-i$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³⁶⁾ 야흔토프의 2등개음 $*-l-$ 의 가설을 지지했던 풀리블랭크는 곧 $*-r-$ 로 정정했고, 周法高와 丁邦新도 李方桂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후 李方桂의 견해는 정설로 정착되었다.³⁷⁾

그런데 <표 1>에 보이듯이 2등 개음 $*-r-$ 은 중고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진 시기는 대체로 남북조시대로 이해되고 있다. 야흔토프(1971)는 개음 $*-r-i$ 이미 後漢 시기에 탈락하여 주요모음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했다.³⁸⁾

34) 어떤 이유로 $*-r$ 표기에 尸를 사용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참고로 鄭張尚芳은 尸를 *hli로 재구했다.

35) S. E. Yakhontov(謝·葉·雅洪托夫), 葉蜚聲·陳重業·楊劍橋(譯), 1986 「上古漢語의複輔音聲母」『漢語史論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42-52면(1960, “Сочетания Согласных в Древне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1960년 모스크바 제25회 국제동방학회의에서의 발표 논문).

36) 李方桂, 1980 앞의 책, 14-16면. 3등자의 개음으로 $*-j$ 와 함께 $*-rj$ 도 있지만 이 글의 논지와 거리가 멀어 언급을 생략한다.

37) 진리신(金理新)은 2등개음 $*-l-$, 3등개음 $*-r-$ 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설을 뒤집기에는 무력하다(金理新, 2002 『上古漢語音系』, 合肥: 黃山書社, 78면).

38) S. A. Starostin, 林海鷹·王沖(譯), 2010 앞의 책, 313면. Yakhontov는 李方桂의 가설을 받아들여 자신이 제시한 2등개음 $*-l-$ 을 $*-r-$ 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풀리블랭크는 적어도 2세기말에는 유음 개음이 보존되어 있다고 했고,³⁹⁾ 後漢시기 음운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코블린(W. S. Coblin)도 적어도 後漢시기까지는 개음 *-r-이 전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⁴⁰⁾ 스타로스틴도 後漢의 운문에서 개음 *-r-이 대부분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았다.⁴¹⁾

丁邦新은 2등 개음 *-r-이 사라진 시기를 남북조시대로 보았다.⁴²⁾ 그리고 백스터는 2등 개음 *-r-이 위진시대까지 존재했다가 남북조시대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00년경에 탈락했다고 보았다.⁴³⁾ 2등 개음 *-r-의 소실은 주요모음에 변화를 일으켜 韻에도 변화를 야기했을 터인데, 일찍이 周祖謨는 2등운의 독립과 分韻이 남북조시대(419~589) 중반인 남조의 齊(479~502) 때에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⁴⁴⁾ 결국 개음 *-r-이 위진시대까지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면, 漢代에 해당되는 신라의 건국초기에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우리말 고대국어의 말음 유음을 표현하려 하였지만 중국의 한자음에서는 운미 *-r-이 사라졌기에 직접적으로 이를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주요 모음 앞의 개음으로 남아 있는 *-r-을 이용했다. 고대국어에는 CrV 형태의 語頭複子音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음운도치 현상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CrV로 우리말의 CVr을 표현한 것이다.⁴⁵⁾

음운도치는 전 세계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말의 음운도치는 ‘빛복’이 ‘빛곱’을 거쳐 ‘배꼽’이 되거나, ‘하야로비’가 ‘해오라기’가 된 것처럼 여러 가

39) E. G. Pulleyblank, 1962, op. cit., 125. 풀리블랭크는 초기에는 2등개음을 *-l-로 이해했으나 후에 *-r-로 정정했다.

40) W. S. Coblin, 1983, op. cit., pp.77-78.

41) S. A. Starostin, 林海鷹·王沖(譯), 2010 앞의 책, 313-314면. 다만 齒音 뒤의 개음 *-r-은 前漢 시기에 이미 탈락했다고 보았다. *sr-의 r이 s에 흡수되어 捲舌音 성모 s-로 변했다고 본 것이다.

42) Ting Pang-hsin, 1975, op. cit., pp.238-247.

43) W. H. Baxter, 1992, op. cit., p.259.

44) 周祖謨, 2004 앞의 책, 165-195면. 남북조시대는 420년 東晉의 멸망과 劉宋의 건국으로 시작된다고 보기도 하고, 439년 北魏의 화북통일로 시작된다고 보기도 한다.

45) 유음 음소로 *-r-만이 아니라 *-l-도 존재했다고 보더라도, CrV로 CVl을 표현할 수 있다. r과 l은 공통속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로 나타난다. 특히 음운도치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r-음운도치 (r-Metathesis)이다. r은 조음 시에 기류의 막힘이나 결림이 아주 적어서 j나 w 같은 반모음 다음으로 모음과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모음과 뒤섞이기 쉽다. 따라서 -rV가 Vr-로 발음되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아예 글자 표기가 뒤바뀌기도 한다. iron을 ‘iorn’으로 읽고, introduce는 ‘intorduce’처럼 들리며, 고대영어의 hros는 hors(horse)로, bridd는 bird로 바뀌었다.⁴⁶⁾

그러므로 우리말의 *sar을 표현하기 위해 沙의 후기상고음 *sra를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증거는 지금은 南川이라고 부르는 경주 ‘沙川’을 ‘年川’이라고 불렀다는 『삼국유사』 기록이다.⁴⁷⁾ 중세국어에서 ‘설/술’은 새해 첫머리[歲首]나 나이[齡]를 가리키는 말이었다.⁴⁸⁾ 그러므로 ‘年川’의 ‘年’은 ‘설/술’ 또는 그와 유사한 음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였음을 알 수 있다.⁴⁹⁾ 그리고 沙의 당시 소릿값이 *sar였다는 것은 ‘沙浪’을 ‘薩浪(살찬)’이라고도 하였다는 것으로 입증된다.⁵⁰⁾

4. 沙로 표현된 동쪽 *sar

우리나라 고대기록에 사용된 ‘沙’의 음과 뜻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沙가 뜻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원전후 沙의 음부터 재구해야 한다. 沙는 ‘모래’의 뜻을 지닌 平聲 所加切 음과 ‘새가 슬퍼 울다, 목이 쉬다’의 뜻을 지닌 去聲 所嫁切 음이 있다.⁵¹⁾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所加切 평성의 성모는 生母,

46) An-Nah Moon, 2005 “Metathesis and Frequency Patterns for the Clusters in Old English”,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51 No.5, pp.1086-1087.

47) 『三國遺事』 권4, 義解 元曉不羈 “沙川 俗云年川 又蚊川”

48) 『月印釋譜』 권8, 101葉 “그 아기 널굽 설 머거”; 『內訓(宣祖內賜本)』 권2상, 6葉 “여덟 서래 비르서 그를 ㅋ르치고(八歲始教之書)”; 『癸丑日記』 77葉 “열두 술 먹은 거술”

49) 도수희, 1992 「설(元旦)과 살(齡)의 어원」 『어문연구』 23. 도수희는 ‘살, 설’이 ‘새[新]’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50) 『三國史記』 권38, 職官志上 新羅官號 “八曰沙浪 或云薩浪 或云沙咄干”

51) 『廣韻』 권2, 下平聲 麻9 獭小韻 所加切 “[沙] 沙汰 說文曰 水散石也”; 권4, 去聲 禿韻 嘎小韻 “[沙] 周禮云 烏鰯色而沙鳴 注云 沙嘶也”

운은 麻韻으로 開口呼 2等字이다. 그 음을 음운학자들이 재구한 것을 검토해 본다.

현대 우리말의 ‘새’에는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새롭다, 사이, 날짐승, 떼’는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동쪽이라는 뜻의 ‘새’는 새벽에 동쪽에 뜨는 금성 ‘샛별’이나, 동쪽에서 부는 바람 ‘샛바람’에 보인다. 이들은 중세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식[東], 새[新], 스듸/스이[間], 새[鳥], 새[茅]’였다.⁵²⁾ 이 가운데 ‘새[間]’은 중세국어에서 ‘스듸’ 또는 ‘스이’로 표기되므로 ‘-르’과 무관하고, 날짐승[鳥]이나 떼[茅]를 뜻하는 ‘새’에는 ‘-르’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남은 동쪽과 새롭다의 ‘새[se]’에는 처음에는 유음 ‘-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 자로는 ‘沙’로 표현되었다.

왜냐하면 종종 /r/은 /i/로 변하고, /l/은 /j/로 변한다. 그래서 ‘살’은 sar>sai>se, 또는 sal>saj>se의 과정을 거쳐 ‘새[se]’가 될 수 있다.⁵³⁾ 그것은 유음의 특성 때문이다. 발음강도는 ‘모음<반모음<유음<비음(공명음)<마찰음<파찰음<파열음’의 순으로 커지며, 공명도는 그 반대이다.⁵⁴⁾ 따라서 유음 i·r·l은 다른 자음에 비해 탈락되거나 모음과 어울려 변질되기 쉬워서 종종 r은 전설고모음 i로, l은 반모음 j로 변한다. 漢語音韻學에서도 칼그렌은 상고의 *-d와 *-r이 중고에서 -i로 변했다고 했고,⁵⁵⁾ 董同龢도 상고음 *-d는 중고음에서 -i로 남았고, *-r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보았는데,⁵⁶⁾ 이는 영어 ladder의 -dd-가 彈舌音 [ɾ](flapped r)로 발음되는 것처럼 [d]가 [ɾ]을 거쳐 [i]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야흔토프는 운미 *-r은 그냥 소멸되거나 -i로 변했다고 했다.⁵⁷⁾

52) 식(東): 『金剛經三家解』(1483), 새(新): 『龍飛御天歌』(1445), 스듸[間]: 『龍飛御天歌』(1445), 스이[間]: 『杜詩諺解(初刊本)』(1481), 새(鳥): 『龍飛御天歌』(1445), 새(茅): 『內訓(宣祖內賜本)』(1573).

53) 潘悟雲, 2002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317면.

55) B. Karlsgren(최영애 옮김), 1985 앞의 책, 142면.

56) 董同龢, 1944 『上古音韻表稿』,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06-107면; 董同龢, 2001 『漢語音韻學』, 北京: 中華書局, 267면.

57) 鄭張尚芳, 2012 앞의 책, 364면(1987 「上古韻母系統和四等, 介音, 聲調的發源問題」『溫州師範學院學報』1987年 4期).

상고의 聲母 *l-은 중고의 以母 j-로 변했다. 'l>ʃ>j'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개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鄭張尚芳은 2등 개음 *-r-의 변화 과정을 'r>χ>w>i>i'로 제시했다.⁵⁸⁾ 결국 살[*sar]은 *sar>sai>se의 과정을 거쳐 '새[se]'가 될 수 있다.

동쪽을 가리키는 '새'는 제쳐두고, 우선 '새[新]'가 '살[*sar]'에서 왔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예로 설명된다.

- A. 新=沙: 新平縣 本百濟沙平縣 景德王改名 今因之⁵⁹⁾
- B. 新=沙尸: 新良縣 本百濟沙尸良縣 景德王改名 今黎陽縣⁶⁰⁾
- C. 新=沙尸=沙: 驪陽縣[驪一作黎] 本百濟沙尸良縣[一云沙羅縣] 新羅景德王改名
新良 爲潔城郡領縣⁶¹⁾

A에서는 '沙=新'의 관계가 성립하고, B에서는 沙尸=新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결국 沙尸=沙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C에서 확인된다. 加羅 출신의 强首가 자신을 '(任那)加良' 출신이라고 소개했듯이⁶²⁾ 良은 종종 [*ra] 또는 [*a]의 표기수단으로 쓰였다.⁶³⁾ 그러므로 C에 등장하는 沙尸良의 또 다른 이름 '沙羅'는 '沙良'과 같은 음을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沙尸과 沙가 어떻게 같은 음을 가리킬까? 이제 〈표 1〉로 沙의 음운 변화를 살펴본다.⁶⁴⁾ 沙의 음을 李方桂나 丁邦新은 *srar로 재구했고, 풀리블랭크,

58) 鄭張尚芳, 2003 앞의 책, 170면(1981년 復旦大學에서의 발표).

59) 『三國史記』 권36, 지리지3 熊州.

60) 위와 같음.

61) 『高麗史』 권56, 地理志1 洪州.

62) 『三國史記』 권46, 亂전6 強首.

63) 김완진, 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4면. '良'을 *ra로 읽는 사례는 향가, 이두표기, 『삼국사기』의 지명 등에 무수히 많다. 加耶도 '가야'가 아니라 '가라'로 읽어야 한다. 加耶는 1세기에 건국하여 6세기에 멸망하였으므로 중고음 [kaja]가 아니라 후기상 고음 [*k'ala]로 읽어야 하는데 [*k'ala]는 고대국어에서 [*kara]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64) B. Karlgren, 1957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16a; 董同龢, 1944 앞의 책, 44 · 184면; 王力, 1987 『漢語語音史』 王力文集10(1985初版), 济南: 山東教育出版社, 611 · 622면; 周法高(著), 張日昇 · 林潔明(編), 1973 『周法高上古音韻表』, 臺北: 三民書局, 128면; 李方桂, 1980 앞의 책, 53면; Ting

鄭張尚芳, 潘悟雲은 *srəl로 재구했다. 沙[*srar/*srəl]는 한편으로는 중간의 개음 r이 강도가 약하여 *sar/*sal과 유사하게 발음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말에는 語頭複子音이 없으므로 *sar/*sal로 들리기 쉽다. 그러므로 沙가 국어의 *sar을 표현하기에 적절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沙平, 沙尸良이라는 지명이 후기중고음(LMC)에 해당하는 8세기 중반 경덕왕 때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전에 이미 운미 *-r/-l이 소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상고음 유음 운미의 소실이 언제 진행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 다르다. 丁邦新은 周·秦·前漢의 沙[*srar]가 後漢·魏晉시기에 [*sra]가 되었고 南北朝·隋唐시기에 [sa]가 된 것으로 이해했다. 풀리블랭크는 歌部의 *-al 이 東周시기에 *-aj로 바뀐 뒤로, 한편으로는 *-aj의 주요모음이 움라우트(umlaut)로 前舌化하여 *-ej가 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단모음화하여 -e가 되었고,⁶⁵⁾ 또 한

〈표 1〉 沙의 再構

	上古音	韻部	中古音
Karlgren	*sa	XXXV	ʂa
董同龢	*sa	歌	ʂa
王力	*ʃeai>ʃea	歌	ʃa
李方桂	*srar	歌	ʂa
周法高	*sra	歌	ʂa
丁邦新	*srar>*sra	歌	ʂa
Pulleyblank	*s'áл>*s'ráj> *s'réj	*s'rá 歌	sá'>sai sej>se :
Starostin	*srāj>ʂāj>ʂā	歌A	ʂā>ʂa
Baxter	*sCraj	歌	srae
鄭張尚芳	*sraal>sraa	歌I	ʃya
潘悟雲	*srəl>*sra	歌I	ʃwa

※ 所加切, 平聲 生母 麻韻(假攝) 開口 2等

- 중고음은 대체로 『切韻』 시기의 전기중고음(EMC)이다.
- 칼그렌의 a는 a로 대체했다. 그러나 풀리블랭크의 고조액센트(acute accent) á, r-umlaut 유발 자음표시 'V, 권설모음 V'과 스타로스틴의 권설모음 a, 장모음 á, 鄭張尚芳의 장모음 aa, 백스터의 약한 폐쇄음 C와 여러 학자들의 산스크리트어 권설음 표기식 ʂ는 그대로 두었다.

Pang-hsin, 1975, op. cit., p.239; 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p.186 · 203; E. G. Pulleyblank, 1984, op. cit., p.193; E. G. Pulleyblank, 1991, op. cit., p.273; S. A. Starostin, 林海鷹·王冲(譯), 2010 앞의 책, 250 · 306 · 309 · 319 · 328면; W. H. Baxter, 1992, op. cit., p.785; 鄭張尚芳, 2013 앞의 책, 456 · 384면; 鄭張尚芳, 2012 앞의 책, 182면; 潘悟雲, 2000 앞의 책, 193 · 262 · 86면.

65) 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p.185-186. 풀리블랭크는 -aj>-ej>-e의 변화를 영어에서 day를 [deɪ]로 읽고 프랑스어에서 -ai-를 [ɛ]로 읽는 것을 예로 들었다(Ibid, pp.190-191).

편으로는 後漢 시기에 중국 북부지역에서 *-aj에서 운미 -j의 소실이 일어나서 歌韻의 운모가 이미 *-a가 되었다고 했다.⁶⁶⁾ 한편 鄭張尚芳은 殷·周의 [*sraɪ] 이 [*sraj]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秦·漢·魏에서 [*sraɪ]가 되었다가 六朝·隋·唐 [ʃ्यa]로 변했다고 했다.⁶⁷⁾

그렇다면 漢代의 沙의 소릿값은 *sra로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은 당시 불경 번역에서 산스크리트어의 śramana를 沙門으로 對譯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풀리블랭크는 *-r-i 주요모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일찍이 李方桂는 2등개음 *-r-i 주요모음에 ‘中央化作用(centralization)’을 한다고 하였는데,⁶⁸⁾ 풀리블랭크는 沙를 개음 *r-i 주요모음에 r-움라우트(r-umlaut) 현상을 일으켜 권설화한다고 보았다. 즉 개음 *r-i 성모 /*s/를 권설화하여 /s/로 만들고, 운모 /*a/도 r-움라우트로 권설화하여 /ar/로 만들어서 /*sra/가 /sar/로 변화된다고 보았다.⁶⁹⁾ 여기서 ‘ar’은 스타로스턴이 a 아래에 ‘:’을 찍어 ‘ā’로 표현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고대국어에는 권설음이 없으므로 중국의 /sar/는 /sar/와 유사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沙[*sra]는 [*sar]의 표기수단으로 유용하다.⁷⁰⁾

그런데 왜 新良縣이 예전에 沙戶良縣 또는 沙羅縣(沙良縣)으로 표기되었을까? 아마도 초기에는 沙에 개음 *-r-i 남아 *sra로 읽혔으므로 음운도치를 이용하여 *sar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중고음기에 들어서서는 *sra의 r-i s에 흡수되어

66) Ibid., p.186. 풀리블랭크는 2세기 말에는 불경 번역에서 阿[?a<*aɪ]가 a를 표기하는 데 쓰이고, 羅[la<*ral]가 la, ra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沙는 歌部에 속해 있다가 중고기에 麻韻에 속했으나 後漢시기에는 아직 歌部에 있었다.

67) 鄭張尚芳, 2002 앞의 논문(2012 앞의 책, 173·182면).

68) 李方桂, 1980 앞의 책, 23면

69) E. G. Pulleyblank, 1984, op. cit., pp.192-193. 풀리블랭크는 沙의 초기중고음을 sar로 표기했으나 후에 sa^r로 수정했다(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186). Rgveda를 Rigveda로도 쓰듯이 산스크리트어의 /r/는 /ri/와 유사하게 발음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지영, 2015 「後漢시기 /r/의 梵漢對譯에 관하여」『중국어문학지』 50을 참조.

70) 다만 풀리블랭크가 모든 경우에 *-ra가 -a^r이 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예컨대 鼻音 陽聲字의 경우, 1·2·4등의 A형 고조 액센트(acute accent)에서는 '-rán>-arn'로 3등의 B형 저조 액센트(grave accent)에서는 '-ràn>(r)ian'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Ibid., p.184, p.189).

s를 권설음 s(§)로 만들어서 沙의 소릿값이 *sra에서 sa로 바뀌었다.⁷¹⁾ 그러므로 늦어도 남북조시대 이후에는 沙는 sar가 아니라 sa의 표현수단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sar를 표현하려면 r을 구현하는 별도의 글자가 필요하여 ‘戸’을 덧붙여 沙戸로 표기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沙戸良은 沙羅(沙良)보다 늦은 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도 가능할 것이다. 〈표 1〉에서 李方桂와 丁邦新은 沙를 *srar로 재구했고, 풀리블랭크, 鄭張尚芳, 潘悟雲은 *sral로 재구했다. 沙의 소릿값이 *srar이든 *sral이든 관계없이, 개음 -r-은 어두자음 s-보다 약하게 발음되므로 들 다 우리말의 *sar 표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북쪽에 있던 유이민 집단은 남쪽 경주로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서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당시 沙의 음은 운미가 소멸하기 이전인 *srar/*sral 상태에 있어서 그것으로 *sar을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주로 남하한 후에 운미 *-r/*-l이 소실되었다. 그렇지만 沙가 개음 *-r-의 음운도치로 인해 *sar와 유사하게 들리므로 지명표기의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沙를 썼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2등 개음 *-r-마저 사라져서 이제는 沙가 오로지 sa의 표기수단이 되기에 이르자 *-r을 표현할 戸를 덧붙였을 것이다.

이제까지 긴 과정을 거쳐 새롭다는 뜻의 ‘새[se]’가 고대국어 *sar에서 왔음을 논증했다. 그렇다면 동쪽을 뜻하는 ‘새[se]’도 *sar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李灝은 『星湖僕說類選』에서는 동풍을 ‘沙’라 한다고 했다.⁷²⁾ 그것은 沙가 동쪽을 뜻하는 한자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6세기 말의 「혜성가」에는 “舊理東戸汀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東戸’는 *-r(戸)을 보유한 CVr

71) 〈표 1〉에서 沙의 중고음 성모 生母를 연구자에 따라 s-와 ʃ-로 달리 표시하지만 서로 아주 다른 음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중국어의 舌尖後音은 인도의 摻舌音 s(§)와는 조음부위가 약간 다르다. 권설음은 혀를 말아 옮겨 혀끝을 이뿌리 치경(齒莖, 齒槽)에 가까이한 상태에서 숨을 내보내어 내는 마찰음이지만, 중국어의 설첨후음은 그보다는 혀끝을 조금 뒤로 옮겨 잇몸 뒤쪽의 입천장 硬口蓋 끝에 가까이한 상태에서 숨을 내보내어 내는 마찰음이다. 조음부위를 치경에 가까운 곳, 또는 경구개에 가까운 곳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권설음(摻舌音: retroflex) s- 또는 경구개치경음(硬口蓋齒莖音: palatoalveolar) ʃ-로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潘悟雲, 2000 앞의 책, 309면).

72) 李灝, 『星湖僕說類選』 八方風 “東風謂之沙” 동쪽을 沙로 쓴 것은 오랜 전통으로 보인다.

을 표기한 글자로 보인다.

동쪽을 뜻하는 ‘東戶’의 讀法에 대해서는 戸를 ‘ㅅ’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ㄹ’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⁷³⁾ 그래서 東戶를 연구자에 따라 ‘샐, 실, 설, 술, 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⁷⁴⁾ 그런데 ‘샐·실’은 중세국어의 ‘새·시’를 참고한 해석인데 근대국어의 단모음 /ɛ/는 중세국어의 이중모음 /ai/에서 온 것으로 파악된다.⁷⁵⁾ 그런데 ‘sai’의 ‘-i’는 ‘-r’이 변한 것이므로 i와 r이 함께 있는 ‘-ir’ 형태의 ‘샐·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동쪽을 가리키는 ‘새’라는 말이 초기 *SARI에서 r 탈락을 거쳐 ‘*SARI>*SAI>SAJ>SE’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⁷⁶⁾ 왜냐하면 앞의 음운변화에서 ‘東戶’가 나타내는 CVr 형태의 표기를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⁷⁾

그렇다면 東戶의 음은 설, 살, 술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sar의 표현수단을 沙로 논증한 과정을 통해 보면 동쪽을 뜻하는 고대국어는 *sar 또는 그와 아주 유사한 음이며, 그 표현수단이 沙, 沙戶 또는 東戶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沙梁/沙喙는 대체로 *sarturk으로 재구되며, 때로는 沙川으로도 표기되어 동쪽의 하천을 표현하였다고 보인다.

73) 초기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梁柱東, 李鐸, 紅기문 등은 戸의 독음 ‘시’를 따라 ‘s’로 해독했으나 지금은 모두 ‘r’로 이해한다. 참고로 鄭張尚芳은 ‘戶’의 상고음을 *hli로 재구한다(鄭張尚芳, 2013 앞의 책, 463면).

74) 김선기, 서재극, 신재홍은 ‘샐’로, 정렬모, 김완진은 ‘실’로, 유창균은 ‘설’로, 양희철은 ‘술’로, 강길운은 ‘살’로 읽었다. ‘샐·실’은 東의 중세국어 訓을 기반으로 한 해독이고, ‘설·술·살’은 東의 古訓 재구에 의한 것들이다(양희철, 1995 「彗星歌와 懿歌의 해독」『인문과학논총』 14,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2면; 김완진, 1980 앞의 책, 127-129면; 신재홍, 2000 「향가의 해석」, 집문당, 227면). 도수희는 중세국어의 ‘새’에 주목하여 「혜성가」의 ‘東戶’를 ‘샐’로 해석하고, 沙平의 沙를 [*say]로 보았다(도수희, 1980 「백제어의 ‘餘村·沙平’에 대하여」『蘭汀南廣祐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75) 김동소, 2003 『중세 한국어 개설』(재판), 한국문화사, 117면; 김무림, 2004 앞의 책, 237면.

76) 도수희, 1985 「백제어의 「東·西」에 대하여」『역사언어학』, 전예원, 27면.

77) 도수희는 戸를 *ri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위의 논문, 33면). 그러면 ‘東戶’를 *SARI로 보고 그것이 말음탈락으로 *SAR(CVr)를 거친 뒤 *SAI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ri는 ‘戶’가 아니라 ‘理, 禮, 利’ 등으로 표현되었다.

5. 及·押으로 표현된 서쪽 *karp

『삼국사기』에서는 한편 閼川 楊山村이 梁部로 발전했는데 梁部를 及梁部라고도 했다고 한다. 及梁의 及에 대해 초기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及’이 ‘미 칠 급’으로 풀이되므로 근본을 가리키는 밑[mit]을 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⁷⁸⁾ 그런데 及은 엄밀히 말해 ‘밑’이 아니라 ‘및’이다. 지금의 우리말에서는 어말의

〈표 2〉 及의 재구

	上古音 韵部	中古音
Karlgren	*g ^h jəp	XV
董同龢	*g ^h jəp	緝
王力	*gjəp	gjəp
李方桂	*gjəp	緝
周法高	*giəp	緝B
Pulleyblank	*g ^r əp	緝
Starostin	*gəp	緝A
Baxter	*grjip	緝
鄭張尚芳	*grwəb	緝I
潘悟雲	*grwəp	緝I

※ 其立切, 入聲 群母 緝韻(深攝) 開口 重紐3等

- 칼그렌, 董同龢의 i와 王力의 i는 j로 바꾸었다.

자음이 内破하여 ‘밑[mit^h]’이나 ‘및[mit^h]’이나 모두 ‘민[mit]’으로 발음되므로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고대국어에서라면 그렇지 않다. 어 말 음소의 内破는 10세기 이후 전기 중세국어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14세기 이후 후기 중세국어에서 완료된 것으로 이해되며, 고대국어에서는 어말 자음이 外破하여 모두 고유의 음가를 실현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⁹⁾ 그렇다면 ‘미출’ 또는 ‘미출’로 새기는 ‘及’이 ‘밑’을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⁸⁰⁾

及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及의 상고음부터 찾아본다. 及의 재구음은 〈표 2〉와 같다.⁸¹⁾ 〈표 2〉를 보면 及의 상고음에서 풀리블랭크 이후로 개음 *-r-i 덧붙여졌고, 대체로 스

78) 前間恭作, 1925 「新羅王の世次と其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63-65면.

79) 이기문, 1972 『國語史概說』(개정판), 탑출판사, 69면.

80) 『石峯千字文』(光州版) 7葉 “及 미출 급”: 『新增類合』下卷, 42葉 “及 미출 급”

81) B. Karlgren, 1957, op. cit., No. 681a: 董同龢, 1944 앞의 책, 243면; 王力, 2013 앞의 책, 89면; 周法高, 1973 앞의 책, 245면; 李方桂, 1980 앞의 책, 44면; 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203; E. G. Pulleyblank, 1991, op. cit., p.140; S. A. Starostin, 林海鷺·王沖(譯), 2010 앞의 책, 290면; W. H. Baxter, 1992, op. cit., p.765; 鄭張尚芳, 2013 앞의 책, 361면; 鄭張尚芳, 2012 앞의 책, 384면; 潘悟雲, 2000 앞의 책, 312면.

스타로스틴 이후로 개음 *-j-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개음 *-r-i이 침가된 것은 及이 重紐3等字이기 때문이다. 개음 *-r-은 2등지뿐 아니라 牙音, 脣音, 舌根音 성모 뒤에 나타나는 중뉴3등자에도 있다. 清末의 천리(陳澧)가 처음 발견한 중뉴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체로 방언이나 변이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목하지 않았으나 점차 실질적인 음의 차이로 인식되었다. 다만 그 차이가 성모의 차이인지, 주요모음의 차이인지, 아니면 개음의 차이인지에 관해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1937년에 아리사카 히데요(有阪秀世)가 한국한자음을 근거로 중고음의 중뉴3등자가 상고의 주요모음이 아니라 개음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 이래로,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는데 1962년에 풀리블랭크가 *r 개음설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백스터, 鄭張尚芳, 潘悟雲 등이 지지를 보내어 거의 정설이 되었다. 그래서 *gr-i이 설정된 것이다.

丁邦新은 중뉴 r개음설을 수용하지 않아 개음을 두지 않고 *gjəp으로 재구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음 *-r-i이 위진시대까지 존속했다가 남북조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⁸²⁾ 한편 야흔토프는 후한 시기에 이미 개음 *-r-i이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스타로스틴은 *gr-, *kr-이나 *br-, *pr-, *mr-과 같은 舌根音과 脣音 뒤의 개음 *-r-은 後漢까지도 보존되었다가 魏晉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⁸³⁾ 그렇다면 신라 건국 초기에는 어느 학설을 따르든 관계없이, 중뉴3등자에 개음 *-r-i이 존속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개음 *-j-의 경우, 칼그렌이 3등자에 舌面音化(구개음화) 작용을 하는 개음 *-j-를 설정하여 그것이 통용되었으나, 풀리블랭크(1962)가 상고음 단계에서는 개음 *-j-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래로, 후에 백스터도 3등자의 개음 *-j-를 철회하여, 그것이 정설로 고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⁸⁴⁾

운미의 경우, 鄭張尚芳은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티벳어의 폐쇄음 유성음 운

82) Ting Pang-hsin, 1975, op. cit., pp.240-247.

83) S. A. Starostin, 林海鷹·王沖(譯), 2010 앞의 책, 306 · 314면.

84) 백스터는 1995년 당시에 이미 개음 *-j-를 철회했다고 한다(潘悟雲, 2002 앞의 책, 326면).

그는 최근 '及'의 재구음에서 -j-를 빼고 *[m-k-]rəp으로 재구했다(W. H. Baxter & L. Sagart, 2014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344).

미가 중국어의 오랜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b로 제시했으나, 중국어 상고음에서는 운미가 外破하지 않으므로, 운미에 清濁(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있을 수 없어 *-p나 *-b나 실질적인 음의 차이는 없다.⁸⁵⁾ 그러므로 재구음은 *grVp로 표시된다.

우리말 고대국어에는 유성 폐쇄음 *g가 존재하지 않아 *k로 실현되므로 *grVp는 *krVp와 동일시된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어두복자음이 없으므로, 앞서 沙[*sra]로 *sar을 표현한 것처럼, 及[*krVp]은 고대국어의 *kVrp를 표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kVrp의 모음 V는 무엇일까? 〈표 2〉에서 모음의 경우에는 *ə, *i, *ɯ 셋으로 나뉘어 있다. 상고음의 주요모음은 칼그렌이 14개를 제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후로 점차 간결하게 줄어들어, 李方桂는 1971년에 모음삼각도의 꼭지점 *i, *a, *u와 중앙의 *ə를 제시했다.

같은 해에 보드만은 야흔토프가 제시한 7모음을 조정하여 6모음체계 가설을 제시했고, 후에 제자 백스터(1980)가 동참하여 보드만-백스터의 6모음체계를 완성했다. 이에 대해 스타로스틴(1989)은 중설고모음 *i 대신에 중설중앙모음 *ə를 제시했고, 이어서 鄭張尚芳과 潘悟雲은 중설고모음 *ɯ를 제시하면서 6모음 체계를 지지하여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표 3〉). 그러므로 *i, *ɯ, *ə는 서로 공존, 대립하는 모음이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선택한, 대체된 모음이다. 그런데 鄭張尚芳과 潘悟雲이 추정한 *ɯ는 『史記』, 『漢書』에서 외국 지명을 표기할 때에 a, e, i, u를 모두 對譯했으며, 변이음으로는 ə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⁶⁾ 그러므로 모음 V에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어부들이 서풍을 ‘갈바람’이라 하고,

〈표 3〉 상고음 6모음 체계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i *ɯ	*u
중앙모음	*ə	*ə	*o
저모음		*a	

*i: Bodman, Baxter

*ə: Starostin

*ɯ: 鄭張尚芳, 潘悟雲

85) 潘悟雲, 2000 앞의 책, 166면.

86) 潘悟雲, 2000 앞의 책, 212면.

서남풍을 ‘갈마바람’이라 하고 북서풍을 ‘된갈’이라고 한다.⁸⁷⁾ 그래서 西를 가리키는 중세국어를 *kar 또는 그와 유사한 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⁸⁸⁾ 서쪽을 뜻하는 방언 ‘갈[kal]’과 及이 표현하려던 우리말의 [*kVrp]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kVrp가 중세국어에서 절음화가 진행되어 겹자음을 발음할 수 있게 되면 kVI(예: kal) 또는 kVp(예: kap)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西’를 뜻하는 고대국어를 추정할 수 있는 地名에 관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D. 西 = 蓋: 都西縣 一云都蓋⁸⁹⁾

E. 西 = 押: 屆於押 一云江西⁹⁰⁾

D를 보면 ‘西’를 ‘蓋’로 표기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E에서는 江을 중세국어에서 ‘仄률, 仄牘’이라 하므로 江이 屆於에 대응하고⁹¹⁾ 西는 押에 대응하고 있다. 결국 西의 뜻을 지닌 蓋와 押의 음이 일맥상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蓋의 상고음은 〈표 4〉와 같이 재구된다.⁹²⁾

87) 이상규, 1953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16면; 이기갑 외 공편, 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1·169면;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상)』, 어문각, 81·82·1133면.

88) 도수희, 1985 앞의 논문, 34·43면. 도수희는 일반적으로 西風으로 이해되는 ‘하늬바람’을 북풍, 서풍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찬바람’으로 해석했다.

89) 『三國史記』 권37, 지리지4 고구려 漢山州.

90) 위와 같음.

91) 『分類杜工部詩詩諺解』(初刊本) 15:21 “미햇 두득과 仄鼓 浦에 仄식 나누니(側生野岸及江浦)”; 『龍飛御天歌』 20章 “仄근매 비 업거늘(河無舟矣)”

92) B. Karlgren, 1957, op. cit., No. 642q·642n; 董同龢, 1944 앞의 책, 233·234면; 王力, 1987 앞의 책, 20·224·631·633면; 周法高, 1973 앞의 책, 136·256면; 李方桂, 1980 앞의 책, 56·57면; 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203; E. G. Pulleyblank, 1973 “Some New Hypothesis concerning Word Famili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1,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p.118; E. G. Pulleyblank, 1991, op. cit., pp.102·123·106; S. A. Starostin, 林海鷹·王冲(譯), 2010 앞의 책, 289면; W. H. Baxter, 1992, op. cit., p.544; 鄭張尚芳, 2013 앞의 책, 351·245·247면; 潘悟雲, 2000 앞의 책, 157면.

〈표 4〉 蓋의 상고음과 중고음

	古太切			胡臘切 (=蓋)			古蓋切 (=開)		
	상고음	운부	중고	상고음	운부	중고	상고음	운부	중고
Karlgren	*kâp>*kâd	X Ⅲ>Ⅲ	kâi	*g ^h âp	X Ⅲ	vâp	-	-	-
董同龢	*kâd	葉	kâi	*vâp	葉	vâp	-	-	-
王力	*kâp>*ka:t	盍>月	kâi	*vâp	盍	vâp	*kâp	盍	kâp
李方桂	*kab>*kad	葉>祭	kâi	*gap	葉	vâp	*kâp	葉	kâp
周法高	*kar	祭	kâi	*gap	葉	vâp	-	-	-
Pulleyblank	*kaps	盍	kaj	*váp	盍	vap	*káp	盍	kap
Starostin	*kâps>*kats>*kać	葉 _A	kâj	*g ^h âp	葉 _A	vâp	*kâp	葉 _A	kâp
Baxter	*kaps>*kats	盍>月	kâj	*fikap	盍	hap	*kâp	盍	kap
鄭張尚芳	*kaabs>*kaads	盍 _I	kâi	*gaab	盍 _I	vâp	*kaab	盍 _I	kâp
潘悟雲	*kaps>*kats	盍 _I	kâi	*gap	盍 _I	fâp	*kâp	盍 _I	kap

※ 胡臘切, 入聲 匣母 盍韻(咸攝) 開口 1等 ※ 古太切, 去聲 見母 泰韻(蟹攝) 開口 1等

※ 古蓋切, 入聲 見母 盍韻(咸攝) 開口 1等

• â는 IPA로 a이다. 칼그렌의 a, â는 a, â로 대체했다.

• 蓋의 재구음이 없는 경우는 같은 반절을 지닌 ()안의 글자를 활용했다.

蓋의 음으로 『廣韻』에는 거성 古太切, 입성 胡臘切, 입성 古蓋切 세 가지 음이 있으나, 그 가운데 古蓋切은 중국 姓에 쓰이는 특수한 음이므로⁹³⁾ 참고로만 제시하고 나머지 두 음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胡臘切은 盍과 반절을 같이하여 별 문제가 없는데,⁹⁴⁾ 지금의 일반적인 한국한자음의 ‘개’에 해당되는 古太切 음은 押의 음과 너무 멀어서 盍와 押이 상통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蓋의 古太切 음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보여 왔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蓋의 처음 형태는 盍이었고 상고음은 대개 *kap으로 재구되며, 중고음 시기에 가서 ‘개’(古太切) 음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칼그렌은 *kap이 *kad를 거쳐 kâi가 되었다고 보았고,⁹⁵⁾ 李方桂는

93) 『廣韻』 권4, 去聲 泰韻 盍小韻 古太切 “[蓋] 覆也 掩也 (중략) 又發語端也 說文曰 苦也 俗作蓋”: 권5, 入聲 盍韻 盍小韻 胡臘切 “[蓋] 苦蓋”: 권5, 入聲 盍韻 頽小韻 古蓋切 “[蓋] 姓也 (후략)”

94) 『廣韻』 권5, 入聲 盍韻 盍小韻 胡臘切 “[盍] 何不也 說文作盍 覆也 爾雅 合也”

95) Karlgren, 1957, op. cit., p.171, No.629q.

葉部 去聲의 *kab가 『詩經』 시기에 祭部로 옮겨가 *kad가 되었고 중고기에 kai가 되어 ‘*kab>*kad>kai’로 변했다고 했다.⁹⁶⁾ 한편 董同龢는 아예 처음부터 *kad, 周法高는 *kar였던 것으로 하여 중고음에서 kai가 되었다고 했다. 이들이 이렇게 재구한 것은 *-d, *-t, *-r은 -i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4년에 오드리쿠르(A. G. Haudricourt)가 중고 중국어와 베트남 한자음의 비교를 통해 중고의 상성, 거성이 상고의 *-?, *-s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설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 점차 풀리블랭크, 백스터, 스타로스턴, 鄭張尚芳, 潘悟雲 등 쟁쟁한 학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학계에 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⁹⁷⁾ 이제 거의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 가설을 토대로 풀리블랭크와 메이쭈린(梅祖麟)은 盖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盖는 본래 盖에서 파생된 글자로서 입성 盖[*gap]은 동사 ‘덮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후에 꼬리자음(suffix) *-s가 붙은 명사가 파생되어 음이 *kaps로 변했고 글자모양도 盖로 독립, 분리된 뒤, 李方桂가 제시한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음이 kaj로 변했다고 보았다.⁹⁸⁾ 그러나 潘悟雲은 盖[*gap]에 처음부터 동사와 명사 두 가지 쓰임새가 있었고 후에 명사가 盖[*kaps]로 분리된 것이라 했다. 潘悟雲의 견해에 따르면 *kaps는 *kaps>*kats>*kas>*kaie>kai로 바뀌었으며 *-s가 탈락되는 과정에서 중고음의 거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⁹⁹⁾ 한편 리신魁(李新魁)는 *-ps, *-ts, *-ks가 모두 ‘-?s>-?>-ø’의 과정을 거쳐 魏晉시대에 음성자가 되었다고 했다.¹⁰⁰⁾

96) 李方桂, 1980 앞의 책, 56-57면. 이 글에서 대개 생략한 李方桂의 *-h는 음소가 아니라 去聲 표시이다. 위민(俞敏)도 “*dgabs>*gads>*gas”의 과정을 거쳐 盖部에서 祭部로 편입했다고 보았다(俞敏, 1999 앞의 책, 95면(『漢藏同源字譜稿』 1949년稿)).

97) 反論에 대해서는 丁邦新, 1998 「漢語聲調源于韻尾說之檢討」 『丁邦新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참조.

98) E. G. Pulleyblank, 1973 “Some New Hypothesis Concerning Word Famili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1, University of Columbia, p.118; 梅祖麟, 2000 『梅祖麟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321면(1980 「四聲別義中的時間層次」 『中國語文』 1980年 6期).

99) 潘悟雲, 2000 앞의 책, 157-158면.

100) 李新魁, 1991 「從方言讀音看上古漢語入聲韻的複韻尾」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1年 4期.

그 과정은 『日本書紀』에서 백제 蓋鹵王을 加須利君으로 부른 것으로 드러난다.¹⁰¹⁾ 蓋를 加須로 표기한 것은 蓋의 처음 소릿값 *kaps가 변하여, 潘悟雲 등이 주장하는 *kats/*kas, 또는 李新魁가 주장하는 *kaʔs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아직은 kai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D의 都蓋에서 蓋를 漢代의 음으로 읽는다면 胡臘切의 *gap 또는 古太切의 *kaps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gap을 취하든, 아니면 *kap(s)를 취하든 대략 우리말의 ‘갑[kap]’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蓋의 古太切 상고음은 *kap(s)과, 蓋와 盖의 胡臘切 상고음 *gap은 한국어에서는 모두 ‘갑[*kap]’으로 실현되는데, 지금의 서쪽을 뜻하는 방언은 갈[kal]로 남아 있다. 이 ‘갑’과 ‘갈’을 충족시킬 음이 바로 押의 상고음 [*krap]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F. 穴=押: 猪達穴縣 一云烏斯押¹⁰²⁾

G. 穴=甲: 穴城 本甲忽¹⁰³⁾

F의 押에는 입성으로 古狎切 음과 烏甲切 음이 있다.¹⁰⁴⁾ 그 두 가지 음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G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F에서 猪達은 烏斯에 대응하므로 굴[穴]을 押으로 읽고, G에서는 忽이 城에 대응하므로 굴

101) 『日本書紀』 권14, 雄略天皇 5년 4월 百濟加須利君(蓋鹵王也). 去聲이 상고음 *-s에서 기원했다는 입증 사례로 ‘蓋鹵王=加須利君’과 함께 ‘湊水=馬背水’, ‘邁盧·邁羅=馬西良·馬斯良’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한경호, 2010 「고대 한반도 고유명사 표기에 나타난 [泰]·[夬]韻의 운미 *-s의 흔적에 대하여」 『진단학보』 109, 281-282면).

102) 『三國史記』 권37, 지리지4 漢山州.

103) 『三國史記』 권37, 지리지4 鴨淲以北打得城三.

104) [押] 『廣韻』 권5, 入聲 鴨小韻 烏甲切; 入聲 甲小韻 古狎切. 押의 성모에 *k-와 *?- 두 가지 음이 있었던 것은 押의 기원과 연관이 있다. Pulleyblank는 중고음의 설근음 k- 성모가 후두폐쇄음 ?-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례로 甲[kaɪp]과 押[?aɪp], 可[ka]와 阿[?a], 今[kim]과 陰[?im]을 들었다(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198). 앞서 밝혔듯이 甲의 초기 중고음 karp는 kaɪp로 수정되었다(E. G. Pulleyblank, 1984 op. cit., p.187).

[穴]을 甲으로 읽었다. 따라서 押과 甲의 음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押의 음은 胡臘切 또는 古狎切로 읽고, 甲의 음은 古狎切 하나밖에 없으므로, 押=(穴)=甲의 관계에서 押도 甲과 같이 古狎切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E, F의 押도 古狎切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押을 甲과 같이 古狎切로 읽고 재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¹⁰⁵⁾

押과 甲은 〈표 5〉에서 대개 *krap으로 읽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 티벳어의 k^h rab은 갑주, 비늘을 뜻하는데, 이는 중국어의 甲과 同源詞(cognate)이다.¹⁰⁶⁾ 그리고 풀리블랭크는 後漢 시기의 r-umlaut로 인한 압운이 『切韻』 훨씬 이전에도 入聲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¹⁰⁷⁾ 그러면서 甲[*krap]의 초기 중고음을 ka^r p(kar p)로 표시했다. krap에 음운도치가 일어나면 kar p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리고 ‘갑[*karp]’은 ‘갑[*kap]’과 현대의 ‘갈[kar>kal]’ 모두에 관계되어 보인다.

앞에서 及의 재구음 *grVp가 고대국어 *kVrp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표 5〉 押·甲의 재구

	상고음 운부	중고음
Karlgren	*kap	X III kap
董同龢	*kap	葉 kap
王力	*keap	葉 kap
李方桂	*krap	葉 kap
周法高	*krap	葉 kap
Pulleyblank	*kráp	盍 kaip ke:p
Starostin	*krāp	葉A kap
Baxter	*krap	盍 kæp
鄭張尚芳	*kraab	盍I kYap
潘悟雲	*krap	盍I kYap

※ 古狎切, 入聲 見母 狹韻(咸攝) 開口 2等

105) B. Karlgren, 1957, op. cit., No. 629a; 董同龢, 1944 앞의 책, 234면; 王力, 2013 앞의 책, 90면; 周法高, 1973 앞의 책, 257면; 李方桂, 1980 앞의 책, 56면; 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203; E. G. Pulleyblank, 1991, op. cit., p.144; S. A. Starostin, 林海鷺·王冲(譯), 2010 앞의 책, 289면; W. H. Baxter, 1992, op. cit., p.766; 鄭張尚芳, 2013 앞의 책, 366면; 鄭張尚芳, 2012 앞의 책, 384면; 潘悟雲, 2000 앞의 책, 262면.

106) S. E. Yakhontov, 唐作藩·胡雙寶(共編譯), 1986 「上古漢語의複輔音聲母」『漢語史論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46면(1960년 제25차 모스크바 국제동방학회의 발표논문). 당시 Yakhontov는 甲의 2등개음을 -l-로 하여 *klap로 재구하였으나 후에 *krap으로 수정했다. 甲과 티벳어 k^h rab의 동원사 관계를 지적한 연구자는 매우 많다[N. C. Bodman(包擬古), 潘悟雲·馮蒸(譯), 1995 『原始漢語與漢藏語』, 北京: 中華書局, 186면(1980,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Leiden: E. J. Brill)].

107) Pulleyblank는 [格]:krák>karc>kæk, [白]:brák>barc>bæk, [戟]:krakk>kiarc>kiek을 예로 들었다(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190).

말한 바 있다. 서쪽을 가리키는 글자 押의 중국 상고음 *krap은 r-metathesis에 의해 *karp으로 실현되고 이는 及이 표현하고자 한 *kVrp에 그대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及이 西를 표현하기 위한 글자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추정이 정당하다는 증거자료는 알타이어에 속해 있는 터키어에서 찾을 수 있다. 터키어에서 동쪽은 대개 ‘doğу(도우)’라 하고 서쪽은 ‘batı(바트)’라 한다. 그러나 동과 서를 지칭하는 별도의 낱말로 ‘şark’와 ‘garp’가 있다.¹⁰⁸⁾ 그것은 지금까지 논증해 온 동쪽을 지칭하는 고대국어 *sar와 서쪽을 지칭하는 *karp의 타당성을 보완한다.¹⁰⁹⁾

어떤 지역, 문화권의 언어의 뿌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母語는 다른데 단순히 인접 지역과 낱말들을 주고받은 것을 근거로 두 문화권의 언어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런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 터키는 한반도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통 모어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물론 祖語 상태에서 인접문화권의 언어가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이 한국어를 알타이어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¹¹⁰⁾ 그러나 최소한 알타이계 언어의 혼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는 고대국어로 *sar와 *karp를 설정할 수 있다. 물론 *sar와 *karp의 모음 /a/에는 변이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sVr, *kVrp로 표시할 수도 있다. 결국 及梁은 고대국어의 *karpturk 또는 그와 아주 유사한 음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로 보이며 그것은 西川을 뜻한다.¹¹¹⁾

108) 서재만 편, 1988 『터키-한국어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25 · 316면; 김대성 외 공편, 2004 『한국어-터키어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25 · 269면. 터키어의 §는 [ʃ]의 소리값을 갖는다. 괄호 안에는 가장 가까운 음의 한국어를 제시했다.

109) 강길운은 터키어 şark를 「彗星歌」의 ‘東戶’를 ‘살’로 해독하는 근거로 제시했다(강길운, 1995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54면).

110) 한국어와 일본어를 알타이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람스테드(G. J. Ramstedt)는 한국어를 알타이어로 인정하면서도 아주 초기에 母語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았다.

111) 押梁을 ‘얇돌[*?arpturk]’으로 읽어 南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나(정연식,

6. 王京의 沙梁·及梁, 中原京의 沙梁, 及伐山郡의 沙川

그러면 과연 경주의 及梁과 沙梁을 서천과 동천이라 할 수 있을까? 及梁部(梁部) 또는 喙部는 關川 楊山村에 기원을 두고 있다. 楊山은 남산을 말한다. 그리

고 알천은 이제까지 北川으로 인식했지만, 그러면 關川 楊山村이 북천 남산촌이라는 이상한 말이 된다. 하지만 關川을 西川으로 보면 알천 양산촌은 서천 남산촌이 되므로 논리적으로도 맞는다. 그리고 양산촌은 지금의 남산 서북쪽 기슭의 식혜골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양산촌은 건국 초기 핵심세력의 거주지였으므로 그 주변에는 나정, 오릉, 탑동 목관묘유적과 같은 초기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¹¹²⁾ 양산촌에서 보면 알천은 당연히 西川이다. 그래서 關川 楊山村이 及梁部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남천은 양산촌에서 보면 北川으로 부

- 국토지리정보원, 2013 『1:50,000 온맵지형도: 경주·불국』(등고선 간격 100m).

를 수도 있지만 북천은 더 북쪽으로 따로 있으므로 <그림 1>에 분명히 보이듯이 동천이라는 뜻의 沙梁, 沙喙, 沙川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5세기 중엽부터는 월성이 궁성으로 사용되면서, 월성이 중심지가 되자 沙川에는 南川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게 되어 남천이라는 뜻이 蟻川[모기내]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이다.

2015a 앞의 논문, 215-216면),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112) 정연식, 2015b 앞의 논문, 30-31면.



<그림 1> 王京의 及梁과 沙梁

沙梁이라는 지명은 경주뿐 아니라 충주에도 있었다. 『삼국사기』 열전에서는 強首를 中原京 沙梁人이라 했다.¹¹³⁾ 중원경, 즉 충주에는 조선시대에 지금의 東良面에 해당되는 東良洞面이 있었는데¹¹⁴⁾ 『輿地圖書』와 『戶口摠數』 등에는 東良洞面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沙川里가 있고 산천으로는 지금의 충주천에 해당되는 沙川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牟梁’이 지금 건천읍 毛良里로 흔적을 남겼듯이, 東良의 ‘良’은 본래 東梁에서 온 말로 보인다. 그리고 ‘梁, 嘴’가 우리말의 하천을 가리키므로 東梁은 바로 강수 열전에 나온 沙梁을 가리키는 것을 추정된다. <그림 2>는 1918년의 5만분의 1 지도 위에 하천을 표시한 것인데, 충주댐의 건설로 수계가 크게 변하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동량동면의 아래쪽을 흐르는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충주 들판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하천에 합류하고 있다. 그것은 경주의 沙梁(남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경주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及梁(서천)에 합류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그 하천을 沙梁이라 불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이 언젠가부터 東梁이 되었고 조선시대에 표기에 혼선이 생겨 東良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¹¹⁵⁾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의 及伐山郡은 지금의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있었다.



<그림 2> 中原京의 沙梁

-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의 『朝鮮五萬分一地圖』(1918)에서 忠州(248) · 牧溪(249) · 黃江里(252) · 堤川(253)의 하천만 추출함.

113) 『三國史記』 권46, 열전6 強首 “強首 中原京沙梁人也”

114) 『輿地圖書』 忠州; 『戶口摠數』 忠州.

115) <그림 2>에서 충주에도 沙川里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지류 하천을 가리키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경주 沙梁을 沙川으로 불렀던 것처럼 東梁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림 3〉 順興面의 沙川과 갈밭들 주변 지형

- 국토지리정보원, 2017 『1:50,000 온맵지형도: 영주』 (등고선은 평지 200m부터 50m 간격).

무수히 많은 沙川이라는 이름의 하천이나 沙川里라는 지명이 하천 바닥의 모래와 연관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데, 읍치 주변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동쪽 하천에서 온 말들이다.

그리고 죽계천의 서쪽에는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어 及伐이라는 지명이 적절하다. 죽계천 서쪽 池東里에는 ‘갈밭들’ 또는 ‘가루밭들’이란 지명이 있는데¹¹⁶⁾ 及伐과 어울리는 말이다. 及伐의 상고음은 대체로 [*krap-bat]로 재구되고 그것은 고대국어의 [*karp-par]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갈밭들’ 즉 ‘及伐들’이란 말은, 마치 ‘毛良川/牟梁川’이라는 이름에서 ‘梁’과 ‘川’이 중복되듯이, ‘伐’과 ‘들’이 중복된 말로 짐작된다. 그리고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하천으로는 죽계천보다는 동쪽 沙川의 수량이 훨씬 풍부하고, 들로는 사천 주변보다는 서쪽 죽계천 주변의 들이 훨씬 넓게 형성되어 있어, 沙川, 及伐의 대비가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예전 읍치였던 곳은 及伐과 연결된 비봉산 기슭의 약간 높은 지점에 있

삼국시대 급별산군이 있었던 順興縣 읍치는 竹溪川 서쪽에 있었으며 근처에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그림 3). 죽계천은 소수서원 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 가다가, 池東里 남쪽 끝 지점에서 沙川里를 끼고 동쪽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오던 沙川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사천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동쪽 하천이라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116) 한글학회, 1979 『한국지명총람 6(경북편 Ⅲ)』, 304면.

어서 순흥을 及伐山郡이라 부르기에 적절하다.

동·서를 가리키는 沙·及에 하천을 가리키는 梁·川이나 들을 가리키는 伐을 결합하여 만든 沙梁, 沙川, 沙伐, 及梁, 及伐이라는 지명은 여러 군데 보인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及伐城’이 여러 번 나타나고, 남산신성비에는 ‘假伐郡’이 등장한다. 그리고 級伐滄은 及伐干(及伏干)이라고도 하였고, 성산산성 목간에는 ‘及伐尺’, ‘急伐尺’이 보인다.¹¹⁷⁾

及伐, 級伐, 假伐, 急伐은 모두 같은 말이다. 及은 其立切로 群母[g-] 緝韻이 고, 級·假·急은 居立切로 見母[k-] 緝韻이며 及과 反切下字를 공유한다.¹¹⁸⁾ 따라서 성모는 다르지만 운모는 같아서 級·假·急은 모두 개음 *-r-을 지닌 중뉴 3등자로서 *krVp로 재구된다.¹¹⁹⁾ 현대국어에서도 그러하지만, 고대국어에서 *g 와 *k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及의 *g-나, 級·假·急의 *k-나 모두 고대국어의 *k-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級·急·假도 及과 함께 모두 서쪽을 가리키는 음을 표기했던 글자로 추정된다.

及을 밑, 근본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 沙를 새[新] 또는 모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¹²⁰⁾ 그러한 해석은 及梁이나 沙梁·沙川의 해석에는 그다지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及(級·急·假)伐과 沙伐에 적용하면 ‘본 벌[原]’과 ‘새 벌’ 또는 ‘모래 벌’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어색하기 짹이 없다. 하지만 及을 서, 沙를 동으로 해석하면 동쪽 벌이나, 서쪽 벌이라는 해석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及을 서쪽으로 보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117) 橋本繁, 2014 『韓國古代木簡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90면.

118) 『廣韻』 권5, 入聲 緝韻 急小韻 ‘居立切’ [急], [汲], [給], [假], [級], [芨] (후략).

119) E. G. Pulleyblank, 1977-1978, op. cit., p.203; W. H. Baxter, 1992, op. cit., p.765; 鄭張尙芳, 2013 앞의 책, 361면. 백스터는 *krɪp, 스타로스틴은 *krəp, 鄭張尙芳과 潘悟雲은 *krwɒp으로 재구한다.

120) 박승홍, 2016 「신라 6부 명칭의 기원」 『신라사학보』 38, 199-201면.

7. 맷음말

신라 건국 초기의 及梁과 沙梁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의 한자음으로 읽을 것 이 아니라 기원전후의 음으로 읽어야 그 뜻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 시기는 중국 漢代에 해당되며 당시의 한자음은 周秦 시기의 상고음과는 다른 후기 상고음이 었다. 그 시기에는 유음 운미 *-l 또는 *-r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漢譯하고, 또는 서역의 지명을 표기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n을 지닌 양성자나, *-t를 지닌 입성자로 외국어의 *-r을 표현하여 해결하였다.

한반도에서도 고대국어의 유음 말음 *-r을 한자로 표현하는데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중국처럼 *-n, *-t로 *-r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다. 비록 유음은 운미에서는 사라졌지만 개음에서는 CrV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음운도치 현상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CrV로 우리말의 CVr을 표현하였다. 沙梁의 沙와 及梁의 及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음 운미가 사라진 漢代의 沙는 *sra로 及은 *grwp/*gr̥ip/*gr̥ep으로 재구된다. 고대 한반도에서 沙[*sra]는 고대국어의 동쪽을 가리키는 *sar을, 及[*grVp]은 서쪽을 가리키는 *kVrp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서쪽을 가리키는 낱말로 押[*krap]이 보이므로 及과 押은 *karp 또는 그와 아주 유사한 음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였을 것이다. *karp은 서쪽을 지칭하는 방언 ‘갈’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터키어의 동쪽을 지칭하는 şark와 서쪽을 지칭하는 garp는 알타이어가 고대국어와 일맥상통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沙는 *sar 또는 그와 아주 가까운 음을, 及은 *karp 또는 그와 아주 가까운 음을 표현했던 글자로 보이며, 沙梁은 東川, 及梁은 西川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 건국의 핵심세력이 거주하고 있던 알천 양산촌은 남산의 서북쪽 기슭 식혜골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에서 보면 남천은 동천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中原京(충주)의 沙梁이라는 지명도 東川의 뜻으로 짐

작된다. 毛良이 본래 牀梁이었던 것처럼, 충주 東良面의 옛 표기는 東梁이었고, 더 오랜 표기는 沙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량면을 흐르는 하천은, 경주의 沙梁이 그렇듯이, 충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의 동쪽을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順興面을 及伐山郡이라 부른 것은 예전 순흥 읍치가 죽계천 서쪽 들판의 산기슭에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죽계천 동쪽으로는 沙川이 흐르고 있어서 沙川과 及伐의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한편으로는 波珍浪, 沙伐干, 及伐干, 沙咄干 등의 관동 명칭에 바다, 동쪽 벌, 서쪽 벌, 동쪽 하천 등의 지역명칭이 나타난 것을 보면 신라 골품제가 부분적으로는 지역별 세력의 강약을 반영하여 편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과제이다.

주제어 : 상고음, 고대국어, 알타이어, 한국한자음, 음운도치, 유음(流音),
개음(介音), 운미(韻尾)

투고일(2017. 4. 4), 심사시작일(2017. 4. 11), 심사완료일(2017. 4. 20)

〈Abstract〉

沙梁[*sarturk] and 及梁[*karpturk]

meaning the east stream and the west stream in Gyeongju of Silla

Chung, Yeon-sik *

‘及梁’ and ‘沙梁’ written in the ancient Korean records should be read as late Old Chinese of Han. Liquid coda *-l(or *-r) in Chou and Chin did not remain in Han. So *-l/*-r was transcribed by sibilant *-n or *-t in China. Another means was used in Korea. The coda *-r was expressed by the medial *-r- of grade II and *chongniu*(重紐) grade III through metathesis. CVr- could be expressed by CrV- by way of r-metathesis. The Korean phonetic value of 梁(梁) was *turk and it means stream or river in Korean. The phonetic value of 沙 was *sra and that of 及 was *grəp/*grip/*grup in late Old Chinese period. 沙[*sra] and 及[*grə(w · i)p] of Old Chinese was used for expressing *sar and *karp of Old Korean. 沙[*sar] and 及[*karp] meant the east and the west in Silla. Nowadays şark and garp in Turkish means the east and the west. Korean and Turkish were the same Altaic Languages.

So, I argue that *sarturk(沙梁) and *karpturk(及梁) meant the east stream and the west stream in Old Korean.

Key Words : Old Chinese, Old Korean, Altaic, Sino-Korean, metathesis, liquids, medial, coda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Women's University.